

## 자동차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면



여름철 폭염은 운전자와 자동차를 지치게 만든다.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운전 중 에어컨 작동이다. 그런데 에어컨 온도를 가장 낮게 조정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차량 내부가 시원하지 않다면 에어컨 고장을 의심해야 한다. 자동차 에어컨의 고장 증상에 따라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. '불스원' (blog.bullstone.com)이 자동차 에어컨 고장 원인과 해결 방법을 소개했다.

### ■ 점검 사항1. 냉매(에어컨 가스) 확인



자동차 에어컨 고장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어컨 냉매가스 누설이다. 냉매가스는 밀폐된 배관에서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줄어들지는 않는다. 하지만 배관이 파손된 경우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.

냉매가스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, 에어컨 공조 장치의 풍량을 가장 낮게 설정해 두고, 소음 여부로 냉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. 만일 냉매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평소 들리지 않던 소음이 들릴 수 있는데 이는 에어컨 냉매가 지나가는 파이프에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. 에어컨 냉매가 충분하지 않으면, 에어컨 컴프레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냉매가 부족하다 판단되면, 정비소를 방문하여 냉매가스를 충전해 준다.



### ■ 점검 사항2. 냉각수 부족

자동차의 난방은 엔진 냉각수의 열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냉각수가 부족하다면 난방의 부진으로 이어진다. 냉각수의 부족은 에어컨뿐만 아니라 엔진 본체에 과열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.

### ■ 점검 사항3. 컴프레셔와 팬 벨트 확인



바람은 잘 나오는데 내부 공기가 시원해지지 않는다면, 에어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컴프레셔와 컴프레셔를 움직이는 팬 벨트를 확인해봐야 한다. 컴프레셔는 자동차 냉매 압축기를 부르는 말이다.

자동차 에어컨의 경우 컴프레셔가 엔진과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 엔진의 회전력을 기반으로 냉매를 압축한다. 컴프레셔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공회전시 엔진 회전수가 올라간다. 또 만일 에어컨을 작동시켰을 때 '끼이익' 큰 소음이 발생한다면 컴프레셔 작동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팬 벨트가 노후되었기 때문이다. 소음이 지속된다면, 정비소를 방문하여 컴프레셔와 팬 벨트를 점검하고 교체해줘야 한다.

### ■ 점검 사항4. 에어컨 냉각팬



에어컨 컴프레셔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시원하지 않다면, 냉각팬을 점검해 보는 게 좋다. 여름철은 높은 기온으로 자동차에 엔진 과열

(Overheat)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, 이때 냉각수 온도 조절기(서머스탯) 불량과 함께 냉각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냉각팬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에어컨 풍량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. 이러한 경우 운전자 스스로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우므로 정비소를 방문하여 제대로 진단을 받는 게 좋다.

### ■ 점검 사항5. 에어컨 필터



에어컨 냉각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면, 에어컨 필터가 오염되어 바람의 양이 적게 나올 수 있다. 에어컨 필터를 제대로 교체하지 않으며, 필터 내 각종 미세 먼지와 오염물이 쌓여 쿼퀴하고 눅눅한 냄새가 발생하므로,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교체해줘야 한다.

### ■ 점검 사항6. 블로어 모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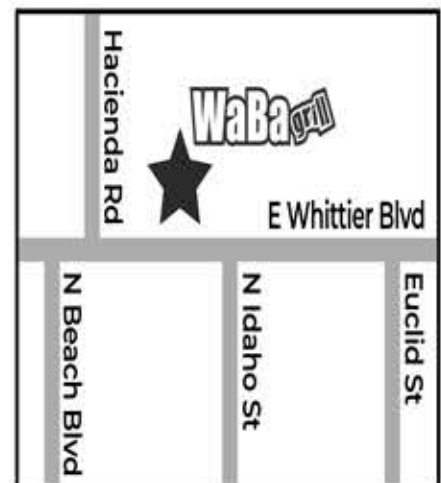
에어컨 스위치를 켜도 바람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블로어 모터의 고장이 원인일 수 있다. 블로어 모터는 에어컨의 공기를 내보내는, 선풍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.

갑자기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에어컨을 켰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비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.

사진=shutterstock

# WaBa grill

La Habra Eat Smart, Be Healthy!



## 562.266.0011

<https://order.wabagrill.com/store/5966>

1351 W. Whittier Blvd. La Habra, CA 90631